

주요정보 요약

Summary of Whitepaper



본 문서는 거래지원 가상자산 백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설명한 주요정보 요약입니다.

코인원은 거래지원 가상자산의 주요정보 요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본 정보

가상자산 카테고리

유틸리티

거래지원 네트워크

Base

홈페이지

<https://chainbase.com/>

참고문헌 (백서, Docs 등)

<https://docs.chainbase.com/introduction/about>

1. 프로젝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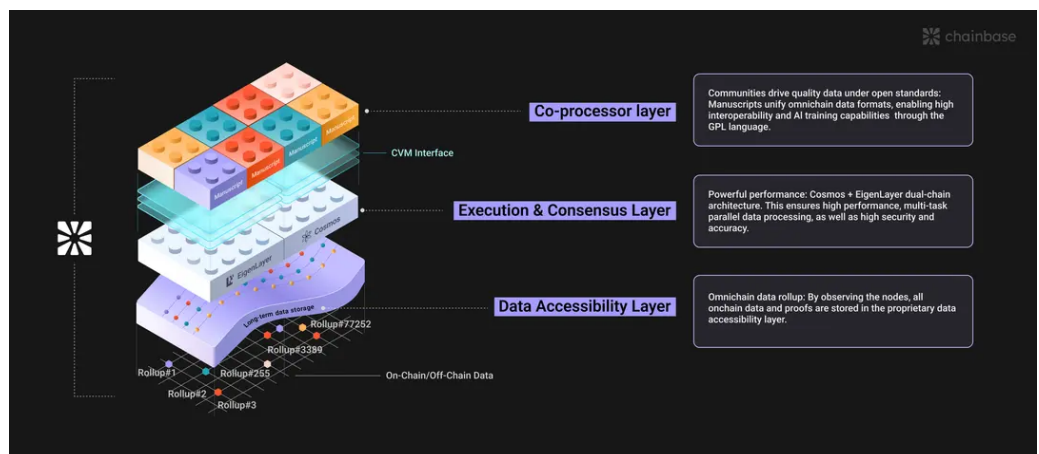
프로젝트 개요

블록체인 기술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수백 개의 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체인 데이터는 체인마다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구조가 상이하고 복잡하여, 데이터 분석과 가치 발굴을 위한 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앙화된 데이터 기업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있어 중복 개발과 낮은 호환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있어 데이터는 단순히 보조적 자원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신뢰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며 탈중앙화된 데이터 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Chainbase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옴니체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Web3와 AI 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hainbase는 다가오는 AGI(인공 일반 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옴니체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 인프라는 보안성, 효율성,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Chainbase의 미션은 데이터를 더 많은 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AI와 블록체인 생태계 간의 협업 방식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Chainbase는 4계층 프레임워크와 듀얼 체인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는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 결정성(Finality)을 제공하며, 이중 스테이킹 모델을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까지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체인베이스 공식 문서

Chainbase의 4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프로세서 레이어 (Co-processor Layer)

커뮤니티 주도로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층입니다. 표준화된 구조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2. 실행 레이어 (Execution Layer)

자체 개발한 온체인 데이터베이스인 ****Chainbase DB(CDB)****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효율화합니다. 이 레이어에는 Eigenlayer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경제적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성능과 보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3. 합의 레이어 (Consensus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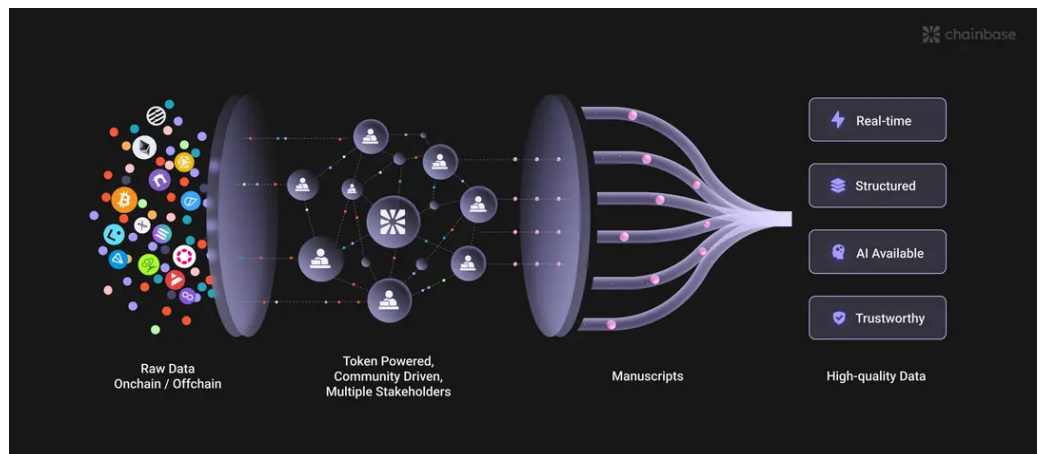
실행된 데이터에 대한 상태를 전체 노드가 합의하는 구조로, CometBFT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합의를 달성합니다.

4. 데이터 접근 레이어 (Data Accessible Layer)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호수(Data Lake)에 신뢰성 있게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ZKP(영지식 증명) 및 ****SCP(스토리지 기반 합의 패러다임)****와 같은 고급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체인베이스의 구조적 특징

Chainbase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 프로세서 계층(Co-Processor Laye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노드 운영자,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일반 사용자 등 누구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토큰 보상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는 'Manuscript'를 작성하여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코드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는 Theia라는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나만의 AI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은 데이터 마이닝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출처 : 체인베이스 공식 문서

Manuscript는 Chainbase 네트워크의 핵심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를 정의하는 스키마(schema)와 데이터를 변환·추출하는 연산자(operator)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 간 완전한 조합 가능성을 보장하며, 개발자는 Python, JavaScript 등 GPL 기반 언어를 통해 복잡한 데이터 쿼리 및 처리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Theia Task Model을 통해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모델(거래 탐지, 보안 모니터링, 여론 분석 등)을 구축할 수 있어, 개발자 커뮤니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Chainbase는 또한 듀얼 체인 아키텍처(Dual-Chain Architecture)와 듀얼 스테이킹(Dual Staking)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층은 Eigenlayer AVS를 통해 병렬화된 작업 환경을 지원하며, 합의 계층은 Cosmos의 CometBFT를 채택해 신속한 최종성과 견고한 합의를 달성합니다. 여기에 네이티브 토큰과 유동 스테이킹 토큰(LST)을 함께 활용하는 듀얼 스테이킹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초기 PoS 네트워크가 흔히 겪는 '데스 스파이럴(Death Spiral)' 문제를 방지합니다.

데이터 접근성과 신뢰성 또한 Chainbase의 핵심 요소입니다. 데이터 접근성 계층(Data Accessibility Layer)은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를 분산형 데이터 호수 형태로 통합하며, ZKP(영지식 증명) 및 SCP(저장소 기반 합의 패러다임)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이벤트는 Chainbase의 자체 가상 머신인 CVM(Chainbase Virtual Machine)을 통해 실행되며, 재편성 문제 없이 일관된 데이터 흐름을 유지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공급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원본 데이터는 검증된 규칙에 따라 샤드 형태로 저장되며, 분산형 저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Theia 모델은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AI 기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2ORA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Theia는 블록체인의 복잡한 구조와 패턴을 요약한 Crypto World Model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방대한 온체인 정보를 신뢰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처음으로 자연어를 통해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AI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토큰 이코노미

가상자산 소개

C는 AI 시대에 최적화된 데이터 경제(DataFi)의 핵심 자산으로, 체계화된 온체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토큰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는 단절적이고 비구조적이며 검증이 어려웠지만, Chainbase의 Hyperdata Network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를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C는 데이터 생성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및 프로토콜 간의 경제적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C는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 참여에도 사용되며, 누구나 탈중앙적 방식으로 데이터 생산과 활용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C는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하고, 유통시키며, 생태계 전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기반 자산입니다. AI 기반 인터넷 환경에서, C는 사람과 기계 모두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경제의 연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행량 및 유통량계획

C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이며, 이 중 유통은 용도와 참여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Core Team 및 Early Backers에게는 1억 7천만 개가 할당되며, 1년간 락업 이후 2년에 걸쳐 선형적으로 유통됩니다. 데이터 노드 운영자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기여하는 참여자를 위한 Worker Incentives 1억 2천만 개는 총 5년 동안 선형 분배되어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장려합니다.

Ecosystem & Community에는 총 4억 개가 할당되어, 개발자 인센티브, 파트너 통합, 캠페인 보상 등 생태계 확장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며, 3년간 선형적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Airdrop Incentives는 전략적 파트너 및 커뮤니티 기여자 보상 목적으로 총

1억 3천만 개가 세 시즌에 걸쳐 분배되며,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됩니다. 또한, 거래소 유동성 확보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Liquidity로는 3천만 개가 배정되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Core Contributors에게는 1억 5천만 개가 배정되며, 마찬가지로 1년 락업 후 2년간 선형적으로 유통됩니다.

사업 측면에서 Chainbase는 ZIRCON(Genesis) 단계에서 옴니체인 데이터 표준화와 분산형 컴퓨팅·저장 구조, 탈중앙화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Web3 데이터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지는 AQUAMARINE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Chainbase Network Explorer를 출시하고, AI 친화적인 Manuscript 데이터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넷에서는 토큰 위임 기능을 도입하여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를 실험 중이며, AI 에이전트를 위한 도구 키트와 산업별 특화 AI 모델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Chainbase는 메인넷 전환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온체인 데이터 기반의 AI 시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커뮤니티 및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공시 내용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큰 C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생태계의 중심 유틸리티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AI 에이전트·애플리케이션·프로토콜은 체계화된 온체인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소비할 때 C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기여자들은 네트워크에 제공한 가치와 활동에 따라 C로 보상받으며, 이는 생태계 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됩니다. C는 AVS 레이어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검증을 위한 스테이킹 자산으로 사용되어, 분산형 실행 환경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아울러 C는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 보상 구조,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투표에도 활용되어, 토큰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C는 Chainbase 생태계 전반에서 데이터 경제의 정산 및 교환 단위로 기능하며, AI 기반의 자동화된 데이터 거래 구조(DataFi)의 핵심 통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고지 안내 Disclaimer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는 당사(코인원)가 본 가상자산 심사 시점에 접근 가능한 정보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투자시점에는 변경 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한 내용 및 백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